

72년 파리 도서전서 처음 공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 쿠랑의 《한국서지》에 실려

모리스 쿠랑(1865-1935)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상식으로 아는 이름이다. 프랑스의 동양학자였던 그는 1890년 주한프랑스공사관의 통역으로 내한, 2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각종 도서를 광범하게 연구했으며, 또 유럽의 여러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한국고서도 널리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펴낸 책이 유명한 《한국서지(韓國書誌)》(전4책)로, 1894~1901년에 걸쳐 파리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한국도서 3,821종이 짙막한 해제(解題)를 곁들여 소개되고 있는데, 그 보유편에 3,738번째로 고려말인 1377년 금속활자로 인쇄된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 실려 있다.

이 기록은 오랫동안 관계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책의 행방이 묘연하여 긴가민가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던 차 1972년 '세계도서의 해' 기념으로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국립도서관 전시회에 이 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 당시 그 도서관 동양문고에 근무하던 박병선(朴炳善)여사에게 '발견' 됨으로써 '세계최초의 고려 금속활자본'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책을 파리로 가져간 사람은 한말에 주한 프랑스대리공사를 지낸 플라망시였는데, 그뒤 베베르라는 책수집가의 손을 거쳐 1950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 《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 줄여서 부르는 이 책은 고려말의 고승인 백운화상(白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말미의 간기(刊記). 1377년(고려 우왕 3)에 금속활자로 인쇄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옆은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목판본, 1239).

고려 금속활자 인쇄의 역사는 기록상으로는 12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세계에서 활자를 제일 처음 발명했다는 중국이나 구텐베르크보다도 200여년이 앞서는 기록이다.

雲和尚, 1298~1374)이 부처님과 여러 조사(祖師)들의 계승·범어·설법 등의 요점을 간추려 엮은 것으로, 1377년(우왕 3) 청주목교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는 간기(刊記)가 뚜렷하다. 이 책은 2권으로 편집되었는데, 현존하는 것은 하권 뿐이다.

세계에서 활자를 제일 처음 발명했다는 중국에서조차도 금속활자인 동(銅)활자를 처음 만든 것이 명나라의 성화·홍치연간(1465-1506)이라니가 우리보다 100년 이상 뒤지는 셈이다. 일본이야 임진왜란(1592)때

우리나라에서 활자와 활자본들을 약탈해간 것이 효시이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으로 알려진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聖書)》가 완성된 것도 1450~55년경이니 비교가 안된다.

고려 금속활자 인쇄의 역사는 기록상으로는 연대가 더 올라간다. 유명한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에는 1234~41년경에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 28부를 주자(鑄字)로 찍어 여러 관청에 나누어 간직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실물이 없을 뿐이지, 앞의 1377년보다 적어도 140여년은 더 올려잡아야 마땅하다.

그뿐 아니다. 지금 삼성출판박물관에 있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證道歌)》(보물 758호, 목판본)도 원래는 금속활자로 간행된 책을 바탕으로 1239년에 다시 목판에 새겨 찍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13세기 초기에 벌써 금속활자 인쇄가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09호 / 1997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윤희
 김동필 천창환

(재) 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표지 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



디자인 예원 TEL: 548-5420 FAX: 3444-1515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다국어맥 편집서비스

학습교재, 다국어사전, 벽지관련 서적

한글판 Quark XPress에서 작업한 화일을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다국어로 4도분판 출력력 가능한 Multi-Language One Step System 탄생 — 한글·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을 한글판 Quark XPress 1개 화일내에서 작업하여 분판출력할 수 있는 MLOS System은 시간, 경제적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100퍼센트 만족시킬 것입니다.

멀티피아 T. 267-5269 F. 278-6441
 중구인현2가 192-30 신성B/D 405